

다산포럼



고 세 훈
고려대 공공행정학부 교수

지난 영국 총선의 여진이 물고 온 가장 큰 이변은 주류 정치에서 사실상 무명이었던 급진좌파의 제미니 코번(그는 30여년의 의정 생활에서 100여 차례 당론을 거역했던 '상습적 반란자'였다)이 압도적 지지로 노동당 당수로 선출되었다는 점이다. 노동당이 비교적 선명한 중도좌파 정치를 표방한 가운데 총선에서 패했던 터라, 당의 이런 연이은 좌편향은 관례와 예상을 벗어난, 그 자체가 하나의 사건이었다.

신자유주의가 맹위를 떨치는 이 시대에, 고전적 좌파의 어젠다를 고집하며 당수에 오른 코번에 대한 노동당 내외의 홀대와 조소는 극심했고 지도부(에비넨가) 구성과 정책 현안을 둘러싼 내용 또한 각별히 치열했다. 그렇다고 노동당의 이처럼 돌연한 분열적 상황이 탈당이나 분당으로 이어지리라는 조짐은 아직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정당정치의 모국어라 할 만한 영국에서도 유령 정치인의 탈당과 분당이 아주

영국 정치를 생각한다

낯선 일은 아니다. 가령 전무후무한 계급 입법으로 불리는 1846년의 반곡물법으로 보수당은 벤저민 디즈레일리를 중심으로 결집한 전통적 보수주의자들과 통 범의 통과를 지휘했던 로버트 피일 수상과 그 추종자들로 나뉘었고, 결국 후자는 휘그와 급진주의자들과 연합하여 근대적 자유당을 출범시켰다. 훗날 빅토리아 조의 영국정치를 디즈레일리와 양분하며 물결네 차레나 수상에 오르게 될 윌리엄 글레드스틴이 로버트 피일을 따라 자유당으로 옮겨간 것이 그 무렵이었다.

19세기 말에는 비망향 시장으로서 개혁정치를 주도했던 자유당의 조지프 체임벌린이 글레드스틴의 아일랜드저지 노선에 반발하며 보수당으로 사실상 이적했고, 우리에게 친숙한 윈스턴 처칠은 아버디 랜돌프의 뒤를 이은 보수당의 개혁 정치인이었지만 보호무역에 반대하며 자유당으로 당적을 옮겼다가 20년대 중엽에는 사회주의에 맞서는 헌정주의자로서 다시 보수당으로 복귀했다.

그러나 영국 정치에서 극심한 당내 분열을 노출하는 정당은 대체로 선거 패배의 긴 후유증을 앓든가, 기존 정당 체제의 틀을 벗어난 분당 세력의 경우, 유명무실하다가 아예 정치적으로 매장당하는 게 통례였다. 반곡물법 파동으로 분열됐던 보수당은 향후 20년간 집권의 기회를 갖지 못했고, 로이드조지 진영과 아스콴스 진영 간의 악명 높은 반목은 1923년의 총

선을 기점으로 자유당을 영국 정치의 영원한 제3당으로 전락시키는 데 일조했다. 노동당이 빈번한 노선 시비와 내용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진보정치의 유일한 대안으로 자리매김해 올 수 있는 이유도 과거 몇 차례의 분당이 준 역사적 교훈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가령 창당 세력인 사회민주연맹과 독립노동당은 노동당을 떠난 후 모두 정치무대에서 사라졌으며, 출당과 탈당이 이어졌던 30년대 초 이후 노동당은 한동안 영국정치에서 완전히 주변화되었다. 대처 집권 직후 노동당이 급진화되자 당 지도부 4인이 20여명의 의원과 탈당 후 결성한 사회민주당은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다 자유당에 흡수되었고, 그 여파로 노동당은 향후 연속 3차례나 총선에서 패했다.

어쨌든 영국 정치에서 보수당-자유당, 그리고 20년대 초 이후 지금까지는 보수당-노동당 양당체제의 근간은 대체로 굳건했거니와, 요란한 광파르와 함께 거기에 균열을 가하려던 좌우의 시도들은 모두 무위에 그쳤다. 그러면서도 분당과 탈당은 당사자 정치인들이 개인적 정치생명을 담보로, 철저히게 이념과 정책적 소신에 따라 감행한 것이었으니, 오늘날까지 영국 유권자 누구도 그런 정치인들을 '철새'로 내치거나 비아냥하는 일은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

한국 정치와의 결정적 분기점이 그 지점이다. 입만 열면 민주주의를 들먹이면

서도 특정 정치인 이름 따위에 기댄 사적 친소(親疎)가 일상적으로 정치를 가르고, 내용도 명분도 없는 작당·분파·개명 등 거둬온 한국 정치의 지극히 낯익은 행태가 새해 벽두에도 버젓이 반복되고 있다.

그것이 지역주의를 부추기고 정치공학적 타산에 따라 행해진다거나, 마땅히 은둔과 익명을 즐겨야 할 구태 정치인과 지식인 정치 낭인들이 지난 행적에 대한 아무런 반성이나 성찰 없이 때를 만난 듯 덩달아 분주하다 해도, 이제 별다른 역심도 감흥도 일지 않는다. 진보세력의 정치적 부재 속에서 양대 보수 진영이 한국 정치의 지형을 멋대로 양분하며 안락한 집권을 탐해 왔던 세월이니, 애초에 이념이나 정책 소신에 따른 재편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망한 노릇이다.

불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울먹이는 철학자로도 불린다. 생성의 원천인 불이 소멸시키는 것들의 죽음을 슬퍼했기 때문이다. 무릇 냉소란 모든 변하는 것들을 견고한 무엇으로 간주하는 태도에서 비롯되거니와, 패배주의의 토양이 그렇게 조성된다. 모조리 태워 없앤다 한들 에도하며 아쉬워할 만한 무엇도 없는 정치판이 되, 그레도 어떤 쪽으로든 결국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라는 명제만은 기어 이 불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정치의 지분이 유난히 크고 냉소 거리가 넘칠수록, 저 나태한 탐욕의 정치판을 그냥 버려둘 수는 없다는 데 우리의 고민이 있다.

정춘 특·특



정 희 찬
조선대 신문방송학과 2학년

나의 푸른 봄

듯 당혹감을 떨칠 수가 없었다. 전정터에 또다시 내몰린 동지(?)라는 이름이 어울리는 캠퍼스 친구들, 알파벳 몇 개로 평가되는 실력. 불안하고 흔들거리는 지금 이 순간이 모두가 부러워하고 그렇게 돌아가고 싶어하던 바로 그 '정춘'이란 말인가? 회의가 들었다.

따지고 보면 현재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고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정춘이 얼마나 될까? 오히려 너무 힘들어 좌절하고 울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지는 않을까? 영화 '스물'에는 이런 대사가 나온다. "사람들은 우리보고 좋을 때다, 좋을 때다 자꾸 그러는데 애매하게 뭐가 없어, 힘들고 답답하고, 그런데 어른들은 배부른 소리라 그러지." 이 영화를 본 정춘들은 '격공'(격한공감)을 했을 것이다. 영국 극작가 조지 버나드쇼는 '정춘'에 대해 "10대들은 하루라도 빨리 도망하기를 열망하고, 가정세대들은 한번쯤 돌아가고 싶어하는 황금의 시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난 '정춘이라는 녀석'의 모습은 그렇게 화려하지만은 않다. 부지런히 스펙을 쌓고, 취업이라는 전정터에서 좀 더 유리한 전술을 구사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인다. 하지만, 미래는 여전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내가 바

로 가고 있는지 묻듯 치미는 불안감이 오늘이 여전히 버겁다. 무엇보다 자신의 내면과 깊이 만나 인생의 미래를 꾸꾸어야 할 청춘을 울리는 오늘의 '현실'.

솔직히 '정춘'이 그토록 좋은 시절인지, 사람들은 왜 그렇게 '정춘'의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하는지 잘 모르겠다.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있는 시기이고 무모하리만큼 '뜨거운 열정'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일까. '인생'이라는 캔버스에 처음으로 '정춘의 구획'을 그려나가는 나. 힘들면 힘든 대로 행복하면 행복한 대로 하나하나 그려가보려 한다. 지금은 어떤 그림인지 알 수 없지만 뜨거운 열정과 성실한 노력의 색채가 정춘의 장면에 가득하도록 말이다. "불확실하기에 가슴 설레었고, 무모하기에 용감할 수 있었노라." 훗날 '정춘'을 공금해 하는 이들에게 환하게 웃으며 말해줄 수 있도록..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은 무엇이며, 그 정의는 또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돈과 권력이 성공의 척도로 자리 잡은 현실 앞에 많은 청춘이 '나의 길 찾기'를 포기하는 슬픈 현실이 되풀이되고 있다. 나는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고 싶다. "미지의 길로 함께 떠나지 않겠느냐?"

"이 길이 아닌 것 같다고" 다시 시작하

면 돼", "조금 천천히 가도 돼", "실패가 두려워 남들이 뒤어놓은 길로 편히 가려한다면 내가 아닌 남으로 살아야 할지도 몰라..." 힘들고 불안해서 울고 있는 또 다른 청춘을 만나면 잘하고 있는 거라고 위로를 주고받으며 더불어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스무 살 때 읽었던 책 중에 기억에 남는 구절이 있다. "문이 아무리 많아도 열지 않으면 그냥 벽이야. 되도록 많은 벽을 두들기고, 되도록 많은 문을 열어야. 정춘이라는 보폭이 너의 실수를 용납해줄 거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는 아직도 많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가장 큰 무기는 '젊음'이고 '청춘'이다. 그 어떤 경험을 하더라도 좋다. 부딪히고 깨지고 수 없이 망가져도 괜찮다는 것을, 그것들이 내 인생의 소중한 경험이고 인생의 배움이라 생각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어느 것이든 시작하는 모든 존재는 늘 아프고 불안한 것이 당연하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지금 우리는 그 누구보다, 그 어떤 때보다 눈부시게 아름답다는 것이다. '정춘', 훗날 그 이름이 '아름다웠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오늘도 열심히, 그저 묵묵히 걸어가야겠다.

기 고



김 기 수
영천초등학교 교사

참다운 부모란?

는다는 데 있다. 이런 말들이 유행을 타게 되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할 정도'나 아이들한테는 얼마나 효과가 크겠는가, 칭찬을 열심히 하면 성격도, 재능도 쑥쑥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의미가 '왜곡, 증폭'되기 시작한 것이다. '아이들이 뻘뻘어지거나 위축되는 게 칭찬을 제대로 못 받은 탓'이라는 루머까지 덧붙여지면서 어느새 칭찬은 교육의 대전제이자 명령이 되어 버렸다. 결국 다들 '칭찬만능주의' 혹은 '칭찬의 힘'에 걸리게 된 것이다.

하지만 좋은 것이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좋은 것이 많아도 결과는 역시 나쁘다. 칭찬 또한 그러하다. 칭찬이란 말 그대로 어떤 행위에 대한 긍정적 멘트를 뜻한다. '잘했어 훌륭해! 멋져부러!' 등등. 칭찬을 들으면 누구나 기분이 좋아진다. 자부심, 곧 자신에 대한 존중감을 맞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핵심은 행위와 말 사이의 적절한 관계에 있다. 칭찬이 빛을 발하려면 둘 사이에 가능한 한 간격이 없어야 한다. 그게 아닐 경우, 즉 행위와 말 사이가 심하게 어긋나게 되면 그때부터 칭찬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된다. 예컨대, 칭찬을 받은 만한 행위가 아닌데 칭찬을 받게 되면 기분은 좋을 수 있다. 하지만 거기서 자부심이 생기지 않는다. 단지 그 기분을 즐기고자 하는 욕구만 늘어날 뿐이다. 그러면 부

모든 그 기대치를 채워 주기 위해 더욱더 과장된 칭찬을 해야만 한다. 칭찬이 '듣기 좋은 꽃노래' 혹은 '사탕발림'이 되어 버리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그런데 만약 이런 식의 '립서비스'에 길들면 과연 어떻게 될까? 자부심이 아니라 자기에 대한 망상으로 가득차게 될 것이다. 소위 공주병이나 왕자병 등이 그런 증상의 일종이다. 그리고 그중 되면 어떤 바람이 전도되기 시작한다. 즉 어떤 행위의 결과로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칭찬 자체가 목적이 되어 버리는 식으로 결국 잠재력을 끌어내기는커녕 잠재력을 영원히 잠재워 버리는 결과를 낳고 만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칭찬이 아니라 믿음이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원초적 차원의 깊은 유대감이 존재한다.

'티베트의학의 지혜'라는 책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온다. 티베트에서는 아기가 태어나면 그대로 바꾸니 안에 넣어둔다. 그리고 아기가 울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방치해 둔다. 그러다 아기가 울기 시작하면 그때야 비로소 살아 있다고 간주되어 "살아갈 마음이 있구나" 하고 탄생을 인정해 준다. 울게 내버려 두는 것은 공기가 희박한 티베트에서 폐를 발달시켜 호흡기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처럼 태어난 순간부터 아기가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책임지도록 해주는 것은

이다. 미리 앞서서 부모가 챙겨주고 일러주는 법이 없다. 그런 식의 배려는 오히려 아이의 생명력을 위축시키기 때문인가?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원리가 아닐까?

동양의 전설적인 명의 편자한테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두 형이 있었다. 형제 모두가 의술의 대가였는데, 큰형은 병에 걸리기 전에 치료를 했다고 한다. 환자가 되기 전에 손을 쓴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의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작은형은 그보다 조금 떨어져서 초기 단계의 병을 고치는 의사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저 '소소한' 병을 고쳐주는 아마추어 의사라고 생각했다. 막대한 편자는 병이 극심하게 진행된 상태의 환자들을 주로 고쳤다. 그래서 불치병을 고치는 명의로 세상에 이름을 날리게 되었다. 하지만 편자의 집안에선 편자를 제일 하수로 취급했다고 한다.

요즘 추운 겨울을 지내며 많지 않은 인생, 그 중에서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살아오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과연 어떤 부모,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며 마지막으로 사무엘-울만의 문장을 인용해 본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느 기간이 아니라, 마음가짐을 말한다. 장미 같은 얼굴, 붉은 입술, 탄력 있는 지체가 아니고, 늙름한 의지, 풍부한 창조력, 타오르는 열정을 가리킨다. 청춘이란 인생의 깊은 샘의 신선함을 말한다.'

社 說

늦었지만 의미 있는 윤상원 열사 기념사업

윤상원은 1980년 5월 27일 새벽, 옛 전남도청에서 계엄군의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났다. 당시 그의 나이 만 30세였다. 숨지기 전날 윤상원은 중고생들과 여대생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제 너희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우리들이 지금까지 한 항쟁을 끝낼 아분주하다 해도, 이제 별다른 역심도 감흥도 일지 않는다. 진보세력의 정치적 부재 속에서 양대 보수 진영이 한국 정치의 지형을 멋대로 양분하며 안락한 집권을 탐해 왔던 세월이니, 애초에 이념이나 정책 소신에 따른 재편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망한 노릇이다.

불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울먹이는 철학자로도 불린다. 생성의 원천인 불이 소멸시키는 것들의 죽음을 슬퍼했기 때문이다. 무릇 냉소란 모든 변하는 것들을 견고한 무엇으로 간주하는 태도에서 비롯되거니와, 패배주의의 토양이 그렇게 조성된다. 모조리 태워 없앤다 한들 에도하며 아쉬워할 만한 무엇도 없는 정치판이 되, 그레도 어떤 쪽으로든 결국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라는 명제만은 기어 이 불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정치의 지분이 유난히 크고 냉소 거리가 넘칠수록, 저 나태한 탐욕의 정치판을 그냥 버려둘 수는 없다는 데 우리의 고민이 있다.

을 포함한 '2030 윤상원 열사 기념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오는 2030년 5·18 민주화운동 50주년을 앞두고 광산구 신흥동 천동마을 생가와 주변을 정비하는 한편 광주시와 함께 신축 도서관 및 윤 열사가 생전에 활동했던 광천동 들불야학 옛터와 시민아파트, 시민군 대본인 등으로 활동하며 계엄군의 총탄에 숨진 옛 전남도청을 연결해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꾸리는 등 인프라를 구축해 갈 방침이다.

이번 윤상원 열사 기념사업 추진은 때늦은 감이 있지만 반값고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박기순 씨와의 영혼 결혼식에서 발표된 '임을 위한 행진곡'의 주인공이기도 한 윤 열사는 광산구가 낳은 대표적인 인물이다. 생가 정비 등 기념사업을 차근차근 전개해 그가 바로 실존 인물 윤상원 열사다.

광주 광산구가 최근 시비 7000만 원을 들여 5·18 민주주의 도서관 건립 등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때 농치지 말아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인 나주 빛가람도시 인구가 지난해 말 1만 2000명을 넘어선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나주를 제외한 외지 전입자는 전체의 81%인 1만140명으로 나타났다. 이전 공기업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대러운 대로 행복하면 행복할 대로 하나하나 그려가보려 한다. 지금은 어떤 그림인지 알 수 없지만 뜨거운 열정과 성실한 노력의 색채가 정춘의 장면에 가득하도록 말이다. "불확실하기에 가슴 설레었고, 무모하기에 용감할 수 있었노라." 훗날 '정춘'을 공금해 하는 이들에게 환하게 웃으며 말해줄 수 있도록..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은 무엇이며, 그 정의는 또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돈과 권력이 성공의 척도로 자리 잡은 현실 앞에 많은 청춘이 '나의 길 찾기'를 포기하는 슬픈 현실이 되풀이되고 있다. 나는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고 싶다. "미지의 길로 함께 떠나지 않겠느냐?"

"이 길이 아닌 것 같다고" 다시 시작하

용지를 분양받아 편법으로 식당·마트를 짓고 있어 형평성 문제와 함께 생활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었다. 일부 주민들도 이 같은 행태에 큰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 전입은 늘고 있어도 가족 동반이주율이 지난해 상반기까지 23%로 저조한 것은 이처럼 어수선한 분위기 외 연관 있어 보인다. 늘어나는 학생수에 비해 학교가 부족하고, 거주환경이 안정되지 않은 점도 가족 이주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일 것이다.

전남도와 나주시 및 교육청 등은 올해 혁신도시 주택 공급을 늘리고 유치원과 초·중·고 1곳씩을 추가 개교할 방침이다. 더불어 무분별한 광고물과 클러스터 용지 내 불법 건축물 단속, 녹지 조성에 나선다는데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이주도 빨라질 것이다. 도시환경은 처음부터 면밀한 계획에 따라 잘 가꾸지 않으면 나중에는 손대기 어렵다는 점을 새겨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털 없는 원숭이'나 '제3의 침팬지' 그리고 '사피엔스'(Sapiens)는 모두 현생 인류를 지칭한다. 분자생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과 침팬지 및 노노보의 유전자 구조는 98.4% 이상 동일하다.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유전적 차이점은 겨우 1.6%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미국 인류학자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인류를 '제3의 침팬지'라고 일컫는 것은 이러한 침팬지·노노보와의 유전적 유사성 때문이다. '두 발로 서서 걸을 줄 아는 털 없는 침팬지일 뿐'인 인간은 700만 년전 침팬지와 공통 조상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후 진화를 거듭하며 오늘에 이른 것이다. 그는 역서 '제3의 침팬지'에서 무엇이 인간을 인간답게 했는지를 탐구하면서 인간의 음성언어에 주목한다.

이스라엘의 유발 하라리 히브리대 교수(역사학) 역시 생물학과 역사를 결합한 시각으로 '사피엔스'의 행태를 살펴 본다. 3만 년 전 까지만 해도 네안데르탈인(유럽), 직립원인(아시아), 호모 사피엔스(동부 아프리카) 등 최소 6종의 호모(사람) 종이 있었는데 왜 오늘날엔 '사피엔스' 종밖에 남지 않았는지를 분석한다. 현생 인류를 뜻하는 호모 사피엔스

에 이르렀다.

최근 북한이 수소 폭탄 실험을 실시한 이후 한반도의 긴장 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폭탄 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지난 10일 B-52 장거리 폭격기를 곧에서 한반도 상공으로 출격시켰다.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슬기로운' 해법이 더욱 절실해졌다.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인류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근거에도 희망이 있다고 믿는다"며 이렇게 매듭짓는다. "…인류의 흥망을 좌우하는 문제를 일으킨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해결도 인간의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간간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238 (우편번호 61482)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800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FAX 222-4938)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 치 부 2200-632	문 화 부 2200-661 (FAX 222-9500)	(FAX 227-9500)	(FAX 227-0195)
(대표 FAX 222-4918)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지 안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